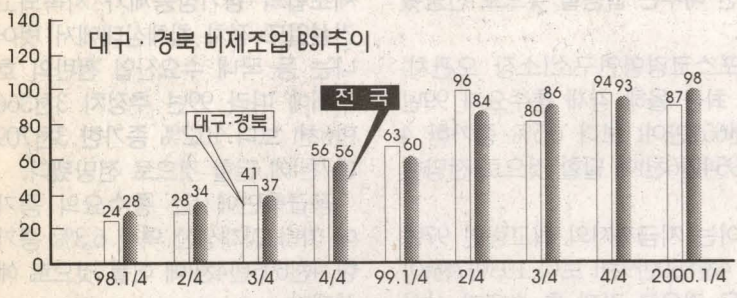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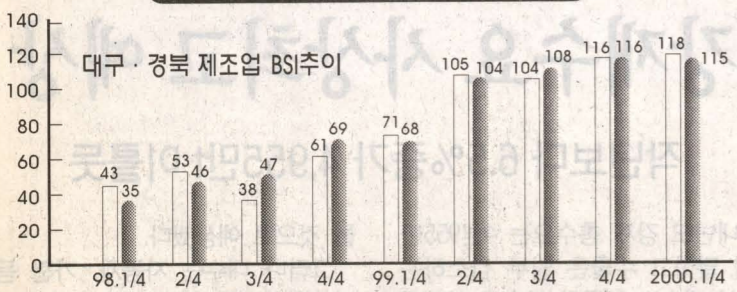


지표로 본 대구·경북 경기



특/별/기/고

WTO협상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 내 희

세계경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무역자유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바있다. 이전에 등한시됐던 서비스 교역, 투자 등에 있어 자유화의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식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세계교역질서 형성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12월 초 출범 예정이었던 뉴라운드는 이러한 기반위에

보호주의적 반덤핑 저지 수출카르텔 국제적 제재 환경관세 도입 귀추 주목

신 국제교역질서를 향해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각국의 상충으로 무산됐으나 향후 수개월 내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뉴라운드 협상분야중 철강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은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환경, 반덤핑제도의 개선 분야 등이다. 철강교역은 선진국의 보호주의적인 반덤핑 조치로 끊임없이 제약을 당해왔고 이제는 개도국들도 반덤핑 제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반덤핑 제도의 남용을 저지할 수 있는 국제적 규율의 도입은 철강교역환경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의제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가장 큰 난관이 예상되는 분야이나 WTO 가입이 이를 일축 가속화시킬 예정이므로 기대해볼 만

하다.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수출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도입이 당장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OECD가 지침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난 10여년간 주장해 오고 있는 일본과 EU를 주축으로 하는 철강 국제카르텔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이 문제가 철강통상의 주요 사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환경분야에서는 이미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WTO협상에서는 환경기준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 이를 처벌하기 위한 환경상계관세의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있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 문제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로 단기에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긴 하나 대표적인 환경경제해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철강산업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뉴라운드 협상은 이처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을 통해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쟁여건의 변화를 통해서도 철강산업에 많은 파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서비스 교역 및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는 기업의 경영방식과 수요산업의 변모를 통해서 철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용틀임하는 지역경제

2000년, 제2도약 원년 설정 철강중심 세계시장 한판승부

포항

포항 철강 산업단지 내 업체들은 최근 철강경기의 활황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신규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2000년을 제2도약의 원년으로 설정. 기술개발을 통한 고압강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승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가 최근 발표한 철강경기전망에 따르면 2000년 철강재 총수요는 4천899만5천으로 99년 대

비 5.8%가 증가, 종전 최대 기록인 97년의 4천850만9천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내수는 3천599만으로 전년대비 8.1%, 수출은 1천300만5천으로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포항철강산업단지내 213개사 중 가동되고 있는 191개사는 지난해 10월말 현재 4조2천604억원의 누적 생산실적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했으며 연말까지 포함하면 연간 계획 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은 99년 목표치 12억7천만달러 중 10월말현재까지 10억4천547만달러를 기록, 98년 동기보다는 14%가 감소했으며 목표 대비 82% 달성률이 예상된다.

각 업체측은 그러나 99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철강경기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 시장이 개방되는 올해부터 철강 전반의 경기가 최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고압강 생산체제를 통한 시장 다변화를 추

경북경제가 IMF체제의 암울했던 터널을 뚫고 2000년도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다. 희망의 새천년에는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경주의 자동차부품 산업 등이 경기상승과 맞물려 예전에 볼 수 없는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며 농·축산물 특화재배 지역인 안동 영주 등 경북 북부지역은 해외 농산물의 무차별 수입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하고 있다. 포항의 경우 2000년 매출액을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1조8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순이익도 33% 증가한 1조5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은 2004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 확보와 고객 중심의 판매, 생산체제를 확립하

는 등 중기경영전략을 실천해 나가기로 하고 먼저 지난해보다 350억원이 증가한 총 1천750억원의 연구개발투자 금액을 투입, 제품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2000년도에 1조6천억원의 매출고를 올리기로 하고 고부가가치 후판제품 개발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창형기자]



자동차부품 제조업 활황세 지속 中 WTO가입... 시장장악 안간힘

경주

새천년엔 경주 지역 300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이 호황을 맞을 전망이다.

경주 용강공업단지를 비롯한 외동 건천 등 2개 지방산업단지외 5개 농공단지에는 지역 주력 사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

적인 도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국내 자동차시장의 활성화로 신차종의 수요급증과 수출선이 늘어나면서 일부업체는 그동안 밀린 작업과 신차종의 부품 조달을 위한 전입까지 강행하는 등 97년 호황기때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위축됐던

자동차소비 욕구가 되살아나면서 관련 부품 산업까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레저인구 증가로 7인승 이상 레저 관련 전자종과 유가 인상으로 경유 및 가스차량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RV차량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것도 상승요인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상승세는 올 한해도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용강공단내 아폴로산업은 올해 생산목표 1천200억원을 달성했고 일진산업은 무려 1천400억원을 달성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20~30% 초과 달성하는 호황을 맞고 있다.

더욱이 인접국인 중국의 거대시장이 WTO의 제도에 들어옴에 따라 그동안 무역장벽으로 사실상 진입이 봉쇄됐던 중국경제권의 개방으로 자동차 완성차 산업의 진출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일부업체는 설비 증설을 준비중에 있고 벌써부터 생

산환경의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수급전을 펼치는 등 다시 찾은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 대다수 업체가 국내 완성차 메이커에 대한 종속적인 납품체계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 거래선의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시대의 능동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해 자동차부품산업의 전경을 밝게해주고 있다.

용강공단의 한 근로자는 '경주지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는 IMF의 쓰러린 아픔을 딛고 새천년엔 새마을 새기름을 일할 각오'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주=김성용기자]

부동산광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광고문의(0562) 289-2214, 2251 팩스 289-2229
성업중 대지70 건평56평 가격 1억2천
흥해 옥성리 답 1760평 7만 국도접자 연녹지 당45만
구룡포 석벽 2460평 잡종지 경관최고 당30만
동해면 금광리 전650평 자연녹지 식당전용 300평 당12만
대각 토지구획 정리지구 상업지역 176평 당35만
흥해 용한리 전456평 준농림 전방최고 당35만
흥해 곡강 한동대영 주거계단지 당420평 준농림 당18만
청하면 청진 대지 270평 건평 100평 가격 2억 8천 상업중 (노래방있음) 식당

흥해 초곡 산2300평 준보존지 구획정리 지구 당15만
동해면 상정리 산3만6천평 도로접 동산공원묘지 부근(공원묘지 적합) 당7천원
청하면 고현 산31,000평 준보존지 당6만 공장지
대도동 상가건물 대지 62.5평 건평 146평 4층 전세 1억3천5백 월 105만 매매가격 5억2천
영일만부동산 275-8857 (해가4202-0158)
흥해 오도 작은행복뿔 편 도로있을 준농림 650평 당16만
흥해 오도 갈매기힐집 건너 언덕위 준농림 270평 당 18만원
청하 이가리 준농림 해변 도로 옆 1000평 19만원 (분할가능)
청하 이가리 준농림 도로옆을 1300평 당11만원

구룡포 삼정 준농림 지 전방 총용 800평 당7만
죽장면 함덕 산8만 평 당2600
문덕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대지다량 확보
흥해 곡강 신항에서 대구간 25M 개항 도로저촉 준농림 760평 당 15만원
신광 사정리농림지역 703평 준농림임야 157평 합860평 35,00만 원
장기 두원리10만평 분할 가능 평당 2,500원
대도 25도로로접 대지 57평 건평 83평 보 증금6500 월125만원 3억1천
새천년공인중개사 275-2522 (해가4203-148)
5층상가 구비예식장 부근 대지61.5평 건물130평 1.2층 유희음식점 3층사무실 4.5층 주택 3억3천

3층상가 목화예식장 부근 8x8m도로까지 대지 51.5평 건물 88평 ①층수려 ②주택 ③주택 98신축건물, 3억4천
3층상가 항구동 도변 (25m)북부해수욕장 부근 대지 54평 건평 90평 2억 3천
3층상가 대도동 사거리 상가 위치최적 1층 상가 2층 사무실 3층 주택 3억 8천
2층상가 죽도 2동 구비예식장 부근 각지건물 1층 상가 3칸에 월125만 2층 주택 대지 63평 건평 60평 본인 직접 내사요망
상가겸주택 동해시 장영리 2동 1층 상가겸 주택 30평 2층 16평 주택 대지 51평 1억 3500만원
2층상가 대도동 상대 분양대지 63평 건물 58평 1층 점포 3칸 (2억 2천) 2층 주택
상가대지 대도동 사거리 부근 대지 350평 25도로로접 평당 350만원
나대지 상도동 KBS방송국 뒤 대지78.3평 빌라 건축지로 최적, 평당 105만 원
준농림지 기계면 봉계리 532평 단갈 나무밭 평당 5만 원 기계면 봉계리 전 900평 단갈 나무밭 평당 6만원
단독주택 상도동 라이프 주택 대지 55평 건평 27평 (완전 수리) 1억
과수원 기계면 봉계리 전 2771평 중문사 330평 현 단갈 나무밭 평당 5만원
210평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있을 같은동 대지368평 주택액음 각 평당 13만원
동해 흥안 230평 레스토랑 최적지 평당 25만원 포장도로로
죽천 솔밭옆 해안도로 변515평 신항만 상권지역 레스토랑등 상가 적지 행정변경가능 평당 60만원
장성 구획정리지구롯데 아파트 부지 앞 130평, 평당 140만 50M 도로변
오천문충 오서사 도개발지역 (인접) 준농림 670평 평당18만원 가든,전원주택 최적지
오천상가 대로변 3 103.5평, 건물 150평 보증금 1억5천, 월100만, 매출3억3천 1100평 평당 22만원
칠포야산 7600평 평당 6만원 원진입도로, 바다경관최고 기도원, 수원원, 사찰 최적지
효자 구획정리예정지 600평 평당45만원

부동산종합전시장
포항에서 최초로 부동산종합전시장을 오픈하여 무료 전시중이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한국부동산중개주식회사 (해가4203-162) 2525-114
[금매]
구획정리지구 30m도로변 435x30만원
[금매]
법원입구 구획정리지구, 20mx6m까지 80평x200만
부림부동산 (해가번호42020229)
(0562)252-8800